

임실군 균형발전사업 결실

전국 우수사례평가서 도내 유일 2관왕... 도농간 격차해소 노력 빛나

임실군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19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임실군은 포괄보조사업과 선도사업 분야에서 모두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 표창을 받았다. 균형발전사업 분야인 2개 항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31개 사업으로 이중 2개 분야가 동시에 우수사례로 꼽힌 곳은 전국에서 3곳, 도내 임실군이 유일하다.

이날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심 민 임실군수 등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단체장 등 관계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함께 평가결과 시상 등 총평,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방향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임실군은 포괄보조사업 분야에서 운임면 임도시설 개설사

면, 선도사업에서는 도농협력 농업 인력지원센터 사업이 각각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임실군이 주관하고 남원시와 순창군 이 참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농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5억8100만원이 투입, 바쁜 농사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권과 지역 내 유흥인력을 연계해 주며, 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최근 3년간 3만 7000명의 농작업자를 알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일손을, 일자리가 없는 도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농간 격차해소와 상생기반 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 선정된 '임도시설 사업'은 1965년 섬진강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고립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운임

면 운정리에서 금기리까지 총 5.9km 구간의 임도를 개설한 사업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농기계 이동 등이 크게 편리해지면서 농업 및 임업소득 기반이 크게 향상되고, 귀농귀촌 인구도 유입되면서 마을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임실군은 지난 해에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2016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추진기관'과 '2016 지역행복생활권 운영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임실지초의 원조인 별가에 출신 지정환 신부는 지역산업진흥유공 대통령 유공 포장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심 민 군수는 "민선 6기 남은기간 동안 그간의 성과들을 차분히 가다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 나가면서 오로지 임실군과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임실=진종영 기자



임실군은 21일부터 11월 초까지 총 3회에 걸쳐, 임실군 덕치면 천달리 구담마을에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용택 시인과 떠나는 인문학여행"

임실군 덕치면 구담마을 21일~11월 초, 3회 진행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콘서트가 농익은 가을날인 10월, 우리와의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선사한다.

임실군은 21일부터 11월 초까지 총 3회에 걸쳐, 임실군 덕치면 천달리 구담마을에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21일을 시작으로 28일과 내달 4일에 열리며, 김용택 시인은 10월에 마련된 두차례의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이번 콘서트는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행, 높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행사의 주무대인 구담마을은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아름다운 시절' 영화 촬영지와 TV 문학기 '소나기', 드라마 문학기 '쑥부쟁이' 등의 촬영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행사는 섬진강변 고즈넉한 시골길을 걸으며 구담마을을 둘러본 후, 구담마을에서 임실필봉농약공원을 보고,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가을 인문학 콘서트, 포크송 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심 민 군수는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섬진강과 임실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멋진 추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군이 전북관광활성화에 선도하는 관광명소로서 이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매아리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 26일 개최

제40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지리산 뱀사골 탐방안내소 일원에서 26일 개최된다.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농특산물 판매행사가 이루어지고 남원시 관광홍보 및 구절초 무료 시음회 등도 진행된다.

산내면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산내면과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후원하여 열리는 이번 단풍축제는 천년송 소원빌기, 구절초비누 만들기, 기념엽서 쓰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산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오미자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있어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상

남원시는 19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리조트에서 열린 2017년 균형발전사업 시상식에서 선도사업 부문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에 대한 시상하고 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2개 부문, 31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각 지자체가 수상했다.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공동으로 2014년 이후 매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4개의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2014년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도농협력인력지원센터 사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개그우먼도 반한 '세계소스박람회' 20일 개막

국내 최초 빌리지형 박람회 3개테마전시 '맛과 멋' 담아

순창 세계소스박람회가 20일 순창발효소스도굴에서 1,000여가지 화려한 소스의 향연을 시작한다.

이번 순창세계소스박람회는 국내 최초 빌리지(Village)형 박람회로 소스를 주제로한 대한민국 유일의 특화형 박람회다. 박람회 전시는 크게 3개의 테마로 진행된다. 첫 번째 테마는 순창장류명인들과 국내소스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아랄과 사람들, 프롤라이스 등 18개 기업과 순창장류명인들이 참여한다. 장아찌 김밥, 맛있는 떡볶이 소스, 볶음소스, 맛간장 소등 등이 선보인다.

두 번째 테마는 국제소스관이다. 홍콩의 이금기 소스를 비롯해 발사리식초, 헬스베버리지 등 13개국 18개 기업이 참여해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각국의 소스가 전시 판매된다.

세 번째 테마는 순창소스기획전이다. 순창의 R&D 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문옥례, 성가경, 장분가 등 순창의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다양한 순창재 소스가 선보인다. 또 순창



순창세계소스박람회가 20일 순창발효소스도굴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그우먼 흥운화씨가 박람회에 방문해 소스를 살펴보고 있다.

에 동지를 튼 국내 최고의 식품회사인 청정원도 참여해 행사를 빛낸다.

순창세계소스박람회의 가장 큰 인기 비결은 소스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맛 진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8인의 셰프들의 소스이야기, 소스토크 강좌와 요리 시범이 펼쳐진다. 참여 셰프는 중화요리의 대가 여경래 셰프, 소스의 여왕 배예환 셰프, 한식의 달인 손승달 셰프, 최형진 셰프, 청정원 대표 셰프 지오바니, 정지선 셰프, 임미영 셰프, 이진호 셰프다.

이외에도 이번 세계소스박람회에서는 고추장요리경연대회에 출품한 다

양한 요리들이 푸드트러형식으로 선보이고 발효소스도굴에서는 수제맥주와 치킨의 하모니 치맥페스티벌도 진행해 찾는 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특히 이번 순창세계소스박람회는 제12회 순창장류축제도 동시에 진행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황숙주 군수는 "드디어 이번주에 순창세계소스박람회가 제12회 순창장류축제와 동시 개막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순창의 맛과 멋을 함께 느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농산물체험 더한 교육사업 인기

순창군이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노후준비교육과 힐링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역 농산물체험과 판매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미니메드스쿨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인 쌈채소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쌈채소 체험은 서울 등 대도시 교육생들이 주를 이루는 노후준비 교육생들에게 순창의 청정 농산물을 소개하고 수확체험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체험에서는 재배 농부가 직접 쌈채소 재배방법, 관리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생들이 수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이 쌈채소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고 순창 쌈채소를 신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체험이 끝난 후에도 교육생들이 농가 온라인 및 전화주문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향후 판매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이차림 교육프로그램에 농특산물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함에 따라 농가소득에 직접적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한해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교육생은 4,00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수도권 등 대도시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홍보 효과는 매우 크다.

군은 이미 교육프로그램에 순창농산물을 재료 건강간식단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순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KBS국악한마당 남원시 한마당

찾아가는 열린무대 KBS국악한마당 공연이 2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0분간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 개최된다.

KBS 국악한마당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국내 최정상 국악인들의 무대와 함께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의 왕기철, 왕기석, 김용우 명창이 출연해 구성지고 맛깔스런 무대를 선보이고,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볼 수 있다. 또한 사물광대와 함께 신명나고 흥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판소리의 고장인 남원에서 국악한마당을 개최되어 더 뜻깊은 행사로 국악의 향기와 전통춤의 신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감성을 충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씀을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